

고무줄 교회

2025년 11월



여러 가정이 떠난 뒤 남은 툴루즈 교회 교인들



청년들의 보금 자리가 되어 가고 있는 까페



4개 교회 연합예배



새로 부임한 독일교회 목사 취임식

툴루즈 한인교회의 교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무줄 교회에요”

그 말처럼 교인 수가 고무줄 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교인 수의 변동이 큰 이유는 한국에서 툴루즈로 오는 한인들의 숫자에 따라 교회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에는 큰 회사의 프로젝트로 인해 10가정 이상이 새로 오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왔던 10가정이 한꺼번에 떠나기도 합니다.

많을 때는 70여 명에 이르기도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40여 명 안팎에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50명 정도였는데, 지난 여름 여러 가정이 툴루즈를 떠나면서 지금은 다시 18명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교인수의 ‘고무줄’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겉으로는 익숙해 보이지만, 사실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늘 쉽지 않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툴루즈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프랑스 개혁교회, 독일교회, 마다가스카르 교회와 연합하여 예배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네 교회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고, 특히 올해는 새로 부임한 독일교회 목사님의 취임예배에 함께 하여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툴루즈 교회가 교인 수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청년 사역 - 한국 디저트 까페

프랑스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시작된 한국 디저트 까페는 이제 3년째를 맞이 했습니다. 보통 3년이면 수입이 안정되어 흑자로 전환될 시기이지만, 올해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툴루즈 지역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알려져, 매우 많은 학생들이 까페를 찾고 있습니다. 까페가 조금씩 청년들의 쉼터이자 아지트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곳 까페가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더 나아가 툴루즈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품어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기도 합니다.

프랑스내 중동 난민 사역

툴루즈의 시리아 출신 압둘라, 우르드는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압둘라의 당뇨 증세가 심해져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다시 회복중에 있습니다. 아직 임대 주택을 배정 받지 못해서 계속 대기중인데 올 하반기에는 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툴루즈에 정착한 다른 3가정의 난민들도 프랑스에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다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난 6월에 보르도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 가정도 지난 9월부터는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 시켰고, 어른들은 불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필요한 절차와 여러가지 일들이 남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프랑스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월도 빠르고 세상의 변화도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빠른 세상의 속도의 적응에도 빈부 격차가 있는 듯 합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 난민들, 약자들은 더 큰 상실감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툴루즈 교회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까페가 이들의 고민과 아픔을 품어 줄 수 있기를 기도 부탁 드립니다.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멀리서 기도 드립니다.

1. 툴루즈 한인교회가 더 견고히 서 나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한국디저트 까페가 청년들에게 위로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3. 중동난민들이 프랑스에 잘 정착하고, 새로운 난민들을 받을 수 있도록
4. 가족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2025년 11월6일 안평화 선교사 올림